

CERTIFICATE
OF ENCOUNTER

ONE DOLLAR — *Symbol of Encounter*

Gillettenarrative.com

Nando the Scribe



Fronte — Signature

Retro — Signature



ONE DOLLAR STORIES는 왜 존재하는가

THE SYSTEM · 14

1. 인류는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나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범주로 나누어 왔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이런 꼬리표는 정체성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는 결코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지름길이다. 그것은 가면이다. 그것은 진짜 질문을 피하는 방법이다: 다른 모든 것을 걷어 내면 무엇이 남는가?

2. 진짜 구별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 실존적인 것이다

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나는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을 바라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나는 훨씬 더 정확한 무언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필요와 욕구. 필요는 당신을 살아 있게 한다. 욕구는 당신을 산만하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혼동한다.

3. 나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을 다룰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여러 해를 보냈다 — 비참함도, 결핍도 아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소음인지 가르쳐 주는 그런 가난을. 그 가르침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연극을 벗겨 냈다. 그것은 환상을 벗겨 냈다. 그것은 돈이 무엇이든 정의한다는 생각 자체를 벗겨 냈다.

4. 나는 책을 썼다, 아주 많은 책을

1, 2, 5, 10, 50, 100, 500, 1200, 3000, 3800, 4200. 많은 작가들처럼 나도 그 책들을 출간하고, 팔고, 인세를 세고, 숫자로 성공을 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하나의 신호가 왔다 — 분명하고, 날카

롭고, 부정할 수 없는 신호가. 그것은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의 일은 이야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다.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5. 거의 모든 것은 거저 줄 수 있다

돈은 부가 아니다. 돈은 의미가 아니다. 돈은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필요한 것들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일 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 — 지식, 진실, 이야기 — 은 아무 대가 없이 줄 수 있다.

6. 그래서 *One-Dollar Stories*가 존재한다

나는 책을 팔지 않는다. 나는 책을 거저 준다. 그 대가로 내가 청하는 것은 양면에 서명한 1달러다. 지불로서가 아니다. 자선으로서가 아니다. 상거래로서가 아니다. 인정의 행위로서다. 하나의 인지적 교환.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신호: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받았다. 나는 이 관계를 인정한다.

7. 이 몸짓은 보편적이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 대통령. 교황. 다국적 기업의 CEO. 길모퉁이의 과일 장수. 1달러는 똑같다. 몸짓도 똑같다. 가치는 가격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치는 관계가 만든다.

8. 우리는 책을 팔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를 짓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시스템이다. 이것이 프로토콜이다. *One-Dollar Stories*가 존재하는 것은 이야기가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는 유일한 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 하나의 몸짓 — 1달러 — 이 인간의 기록 보관소 전체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Ferdinando